

# 인터넷의 미래

## 짧아지는 제품사이클

인터넷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는 경제활동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오늘날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누르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도 실은 인터넷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언제든지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인터넷은 기업이나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보기술과 인터넷은 80여년 전의 전력과 같이 아직도 발아기(發芽期)에 있다. 1920년까지는 기업들이 수력터빈을 돌리기 위해 대형 전동기를 사용해야 했다. 1920년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하나의 장비를 가동하는 소형 전동기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게 됨으로써 전기는 작업의 흐름을 바꿔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오늘날 인터넷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실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진정으로 배운 기업은 많지 않다.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정보경영 및 시스템대학장 할 바리언은 인터넷 기술들이 이미 가동하고 있는 공정을 대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인터넷은 물론 전반적인 전산화에서 얻는 생산성의 향상은 아직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의 모든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때 과연 세계경제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줄 것인가? 그 답은 새로 어떤 이용법이 발명될 것인가에 달려 있으므로 자세한 회답은 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추세는 예측할 수 있다. 먼저 비즈니스의 경영속도는 계속해서 더욱 빨라질 것만은 분명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 경제학 교수 데이펜 먼로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생활주기)은 2~3년 또는 그 이하로 단축되고 산업의 라이프사이클도 10년 이하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사 기술부장인 배리 뉴만은

이렇게 짧은 라이프사이클이라면 현재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속도의 가속화가 노동자들에게는 더 많은 여가시간을 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 이유는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탠퍼드대학 경영대학원 교수 폴 로머는 경제성장이 빨라지면 임금이 올라가고 그 결과 사람들의 시간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로머는 이어서 사람들은 직업은 물론 자기들의 시간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인터넷의 가속되는 성장에서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다섯개의 다른 가게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쇼핑하는 것보다 시간이 덜 먹히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한편 미국의 미래 전망기업인 프라이마크 디지전 이코노믹스사의 경제부장인 앨런 사이나이는 주식과 부동산의 거래속도가 인터넷으로 가속화되고 인터넷 주식투자자들이 그만큼 달아오르게 되면 시장은 불안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중에는 시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걸리는 것도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일부 인터넷과 정보기술회사들의 부폰 가격이 '거품'이 될 수 있어 결국 추락으로 끝나 버리기 때문이다.

## 사회적 상호작용

한편 기술의 진보는 사람들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고정된 궤도에 따라 계속된다고 생각하는 '기술결정론'을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스탠퍼드대학의 로머는 "인터넷은 사회의 모습을 바꿀 것이나 사회도 조세, 반독점정책, 새로운 형태의 표준조직의 지지, 개인 및 지

인터넷 이용자의 수는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네티즌 인구는 1천만을 넘어섰다.

인터넷의 선발국가인 미국에서는 1998년 인터넷을 통해 하루 평균 약 30억건의 전자우편을 주고받아 비즈니스 통신수단으로써 전화를 앞질렀으며 1999년의 인터넷을 통한 거래량은 6천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늘의 인터넷을 뒷받침하는 것은 빠른 걸음으로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네트워크, 정보처리속도, 데이터저장능력, 소프트웨어, 그래픽기술, 사용자-기계의 인터페이스 등이다. 2003년에는 퍼스널컴퓨터의 저장용량이 오늘날의 10기가바이트(100억바이트)의 1백배인 테라바이트(조바이트)수준으로 뛰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기술이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할 때 인터넷은 세상의 모습과 인간의 활동을 어떻게 바꿀까?

적재산의 보호, 가정과의 주파대 연결규정을 통해 인터넷의 모습을 바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정부가 이미 교육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술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의 미래를 둘러싼 문제는 과연 학교가 필요한 만큼의 훈련된 사람을 배출할 수 있으며 일부 예측대로 정보기술을 경제적으로 ‘있는 자’와 ‘없는 자’간의 ‘평형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충분한 수의 빈곤층과 소수민족 출신의 기술계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을 까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것이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의 바리안의 견해다.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교육기관들이 컴퓨터를 학습과 통합하는 일에 성의가 없기 때문이다. 스탠퍼드대학의 로머는 노동인력의 기량은 재학년수를 늘린다고 해서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당국에게 25세, 30세, 35세까지의 노동인력을 훈련시켜 달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 기술훈련량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바리안도 초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생 및 현장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의 교육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인터넷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간의 갭을 좁히기 보다는 갭이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면 비즈니스의 일부 기능은 거치지 않고 회피하게 되어 결국 그런 기능은 소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갈등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고객과 교통기관이나 숙박시설간의 중간역할을 하는 여행사는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하면 매우 어려운 처지

에 놓일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대리점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얻는 ‘과정’을 몹시 싫어하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모으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유통구조에도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쇼핑몰(특히 교외의 대규모 쇼핑센터)은 앞으로 계속 소비자들을 끌어들이지는 몰라도 그들중에는 쇼핑센터에 입주한 극장이나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다른 오락시설에 가기 위해 찾아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바리안은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가게에서 쇼핑하는 액수는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경제 거래 총액중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경제의 대가인 조셉 슈페터가 내세운 “보다 좋은 방법으로 낡은 방법의 비즈니스관행을 대체한다”는 이른바 ‘창조적 파괴’의 사례들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들은 일부 일자리를 없애고 경제적으로 위협을 받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터넷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성장은 경제성장, 생산성, 소비,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보다 많은 여가시간 등 잃은 것보다 훨씬 큰 이득을 약속하고 있어 결국 거의 모든 사람에게 보다 풍요한 생활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현대국가와 사회가 이런 정보기술이 가져올 약속을 구현시키고 위협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기구를 실험하고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뒤 다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이 인류의 미래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없으나 다행히도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그런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⑤7

〈春堂人〉